CSLV

THE DOCENT FOR DESIGN LIFE

CASA LIVING
까사리빙

네 가지 라이프스타일 테마의 여행

자신에게 오롯이 집중하는 웰니스 여행 / 브랜드가 큐레이션한 라이프스타일 호텔 /
미술관 옆 스테이, 예술적 영감을 찾아 떠난 휴가 / 파인 다이닝, 여행의 목적이 되다 /
세계를 누비는 디자이너의 여행지 / 공간을 넘어 일상을 케어하는 비스포크 큐브 Air 인테리어

2023 FEBRUARY WWW.CASA.CO.KR

ISSN 1228-8993
2
9 771228 899004
값 7,500원

네 가지 라이프스타일 테마의 여행

어느 곳을 가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체험하고 싶은지에서 여행의 목적을 찾는 시대다. 어느 순간 에어비앤비는 체험하고 싶은 액티비티를 앞세워 검색 바의 구성을 교체했고, 스테이 공간은 주인이 추구하는 가치와 라이프스타일을 공유할 수 있는 여행의 테마 그 자체가 되었다. 〈까사리빙〉에서는 쉼, 라이프스타일, 예술, 미식 등 네 가지 뚜렷한 테마를 경험할 수 있는 국내외의 최신 여행 장소를 선별해 제안한다. 달라진 여행 트렌드를 파악하며 다음 여행 체험을 계획해보는 건 어떨까.

기획 〈까사리빙〉 편집부

Destinations

LISBON
NEW YORK
OITA
YANGYANG
UDINE
& MORE

Themes

1 RELAXATION
자신에게 오롯이 집중하는 웰니스 여행

2 INTERIOR
브랜드가 큐레이션한 라이프스타일 호텔

3 ART & DESIGN
예술적 영감을 찾아 떠난 휴가

4 FINE DINING
파인 다이닝, 여행의 목적이 되다

Special 1

©Chateau Voltaire

Photo by Sim Canetty-Clarke Courtesy of Hauser & Wirth

공간이 지닌 원초적인 느낌과 화려하면서도 퀼키한 분위기가 어우러진 응접실. 금빛 벽으로 둘러싼 이곳은 벽난로 옆의 암체어를 비롯해 좌석 옵션이 풍부하다. 스위스 아티스트 피필로티 리스트(Pipilotti Rist)의 장소 특정 비디오 예술 작품과 샹들리에 설치 작품을 감상하며 보드게임을 즐길 수 있다.

예술적 영감을 찾아 떠난 휴가

Creative Getaways

여기 순수한 예술적 영감을 나누고자 자신의 공간을 내어주는 사람들이 있다.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상 그 자체를 실현하기 위한 예술. 그 영혼의 휴식을 찾아 떠나보자.

에디터 한예준

이상적인 아트 커뮤니티의 경험
하우저앤워스 서머싯의 '더슬레이드 팜하우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갤러리로 손꼽히는 하우저앤워스는 평화로운 영국 서머싯의 전원 마을 브루턴(Bruton)에 지역 주민들과 아트 러버들이 교류하는 이상적인 낙원을 만들었다. 2012년에 문을 연 하우저앤워스 서머싯(Hauser & Wirth Somerset)은 약 6000m²의 대지에 전시장과 교육장, 정원 등이 펼쳐지는 뮤지엄급 규모로 이루어졌다. 래리 벨, 조지 콘도, 루이즈 부르주아 등이 전속 작가로 있는 이들의 전시 수준은 말할 것도 없고, 이곳에서는 학생부터 성인까지 포괄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인기다. 세계 최고의 네덜란드 정원 디자이너 피트 아우돌프가 조성한 정원은 서머싯 특유의 목가적인 환경을 배경으로 비밀의 장소에 들어선 듯한 환상적 분위기를 절정으로 끌어올린다. 하우저앤워스 서머싯 내에 자리한 로스바앤그릴(Roth Bar & Grill) 레스토랑의 스테이 '더슬레이드 팜하우스(Durslade Farmhouse)'는 멀리에서 찾아온 여행객을 맞이하기 위한 숙박 시설이다. 18세기 농가의 개조는 아르헨티나 건축가 루이스 라플라이세(Luis Laplace)가 맡았는데, 기존 건물과 어울리는 듯하면서도 예기치 않은 콘셉트를 가미해 대담하면서 유쾌하다.

Dropping Lane, Bruton, Somerset, England
www.dursladefarmhouse.co.uk

Photo by Sim Canetty-Clarke

1 더슬레이드 팜하우스에는 모두 여섯 개의 침실이 있다. 오리지널 건물의 날것 같은 분위기와 빈티지 가구, 독특한 인테리어와 하우저앤워스 소속 작가들의 유니크한 작품이 어우러져 신선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사진 속의 침실은 아티스트 폴 매카시(Paul McCarthy)의 벽지에서 영감을 얻어 생기 넘치는 블루 컬러를 가미한 '폴 매카시 베드룸'. **2** 세계 최고의 정원 디자이너 피트 아우돌프의 걸작으로 손꼽히는 환상적인 정원. 그 위에 자리 잡은 파빌리온은 칠레 건축가 스밀한 라딕(Smiljan Radić)의 설치 작품이다. **3** 하우저앤워스 서머싯 안에 자리 잡은 더슬레이드 팜하우스. 18세기에 지어져 1918년 이후로 사용되지 않던 농장을 수리하고 복원해 게스트 숙소로 완성했다. **4** 빈티지와 새 주방 기기를 함께 갖춘 주방에서 게스트는 서머싯의 신선한 식자재를 구입해 요리할 수 있다. 다이닝룸은 아르헨티나 아티스트 기예르모 쿠이트카(Guillermo Kuitca)가 입체파 분위기의 벽화로 꾸몄다.

Photo by Aaron Schuman

Radic Pavilion, designed by Smiljan Radic, 2014, Hauser & Wirth Somerset Photo by Heather Edwards

Courtesy of Hauser & Wirth

Photo by Sim Canetty-Clarke

Courtesy of Château Voltaire

1 모두 다르게 꾸민 32개의 객실 중 하나. 공간을 디자인한 프랑크 뒤랑과 건축 듀오 페스탕은 이 공간 자체가 품은 역사에서 영감을 받아 섬세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2** 라 코키유 도르(La Coquille d'Or) 바는 깊은 밤에 동네의 광장 같은 역할을 한다. 그 외 호텔 내에 자리한 레스토랑 에밀(Émil)은 훌륭한 식자재에 초점을 맞춘 심플한 요리를 선보인다. **3** 호텔 내 스파. 소재와 장식 등 다양한 요소 간의 대비와 규칙을 표현하며 최고의 장인들과 정교하고 아름다운 인테리어를 완성해냈다.

파리의 매력이 응축된 이상적 안식처

자딕앤볼테르의 '샤토 볼테르 호텔'

프렌치 패션 브랜드 자딕앤볼테르의 설립자 티에르 길러(Thierry Giller)가 선보이는 샤토 볼테르(Château Voltaire)는 그가 생각하는 파리의 마법 같은 매력을 오롯이 담은 호텔이다. 평소 자딕앤볼테르를 통해 유니크하고 럭셔리하지만 과시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선보여온 그. 이번 호텔은 파리의 오랜 역사적 유산과 호화로운 아름다움, 우아하고 세련된 삶의 방식과 문화적 교류의 즐거움을 그가 생각하는 개인적 방식으로 표현해낸 것이 특징이다. 디자인을 의뢰받은 프랑크 뒤랑(Franck Durand)은 평소 인테리어뿐 아니라 패션과 뷰티, 라이프스타일 분야에서 일하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그는 건축 듀오 페스탕(Festen)과 손을 잡고 티에르의 이상을 집처럼 편안하면서도 신선한 놀라움 가득한 장소로 구현해냈다. 건물은 17세기와 18세기 건물 세 채를 합친 규모이며, 호텔이 위치한 지역은 파리의 중심인 오페라 가르니에 인근이다. 이 건물은 이전 자딕앤볼테르의 헤드쿼터였다고 하니, 건물에 대한 주인의 특별한 애정을 확인할 수 있다. 5개 층에 걸쳐 있는 32개 객실 하나하나를 유니크하게 꾸몄고, 그 외에도 레스토랑과 바를 마련해놓았다.

55-57, Rue Saint-Roch Paris

www.chateauvoltaire.com

알프스산맥의 깊은 산골짜기에 숨어 있는 발스 온천. 내면으로부터의 공감이 있는 진실된 건축만을 고집스레 추구해온 페터 춤토어의 대표작이다. 발스 지역의 규암을 쌓아 완성했다.

사려 깊은 건축이 전하는 고요한 휴식

페터 춤토어의 '발스 온천'

현대 건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와 의미의 낭비에 대항하며, 건축의 몸 자체로 감동을 이끌어내는 페터 춤토어. 이 시대 가장 존경받는 건축가임에 틀림없는 그는 건축의 장소성을 바탕으로 고요한 공감을 이끌어내기로 유명하다. 2009년 프리츠커상을 받은 그에게는 여러 대표작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1996년에 선보인 발스 온천(Therme Vals)이다. 스위스 중동부 알프스산맥의 깊고 깊은 골짜기에 자리한 발스 마을. 건축물에 특정 분위기를 형성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그는 자신의 저서 〈분위기(Atmospheres)〉에서 이곳에 '느긋하게 거닐 수 있는 환경', '지시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유혹하는 분위기',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여러 요소를 고려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때 건물이 내는 특유의 음색은 그가 매우 중요시하는 요소의 하나다. 최대한 조용한 장소로 만들기 위해 설계 시 비율과 재료까지 신경을 쓴다고 한다. 발스 온천은 발스 지역에서 채석한 규암 슬래브 6만 장을 쌓아 완성했다. 작은 산골 마을은 그의 온천 덕분에 건축 애호가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어 하는 유명 휴양지가 되었고, 이후 단지 안에 페터 춤토어를 비롯해 안도 다다오, 구마 겐고, 톰 메인 등의 건축가가 각 객실을 디자인한 하우스 오브 아키텍츠(House of Architects) 호텔이 추가되었다. 현재 온천과 호텔, 레스토랑 등은 이곳의 번지수를 딴 7132란 이름 아래 소개되고 있다.

7132 Vals, Switzland
www.7132.com

1 건축가는 방문객이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거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의를 기울였으며, 고요함 속에서 장소가 주는 독특한 울림을 경험케 하고자 했다. **2** '하우스 오브 아키텍츠' 호텔을 위해 페터 춤토어가 디자인한 게스트룸. 그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에 사용하던 스투코 회반죽 방식으로 벽과 천장을 마감했다. 그 외에도 건축가 톰 메인이 이끄는 모포시스 아키텍츠(Morphosis Architects)는 각각 목재와 규암으로 이루어진 객실을, 구마 겐고는 정교한 일본 목공예에서 영감을 얻은 코쿤 느낌의 오크룸을, 안도 다다오는 일본 티하우스를 오마주해 목재로 구성한 게스트룸을 선보였다. **3, 4** 세인트 페테르 샘에서 나오는 미네랄이 풍부한 30℃의 온천수. 그 위에 건축의 감동이 더해진 발스 온천의 유니크한 분위기는 일상을 벗어난 완벽한 휴식을 선사한다.

Courtesy of 7132

건축, 디자인, 아트가 조화를 이룬 종합예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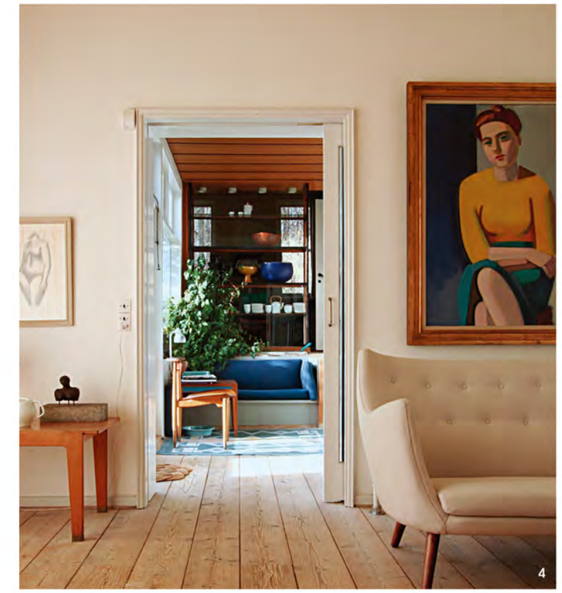
핀 율의 '핀 율 하우스'

가구 디자이너로 잘 알려진 핀 율은 사실 건축을 전공했으며 미술사학자를 꿈꿀 만큼 예술에 조예가 깊었다. 이런 그가 코펜하겐에서 약 10km 떨어진 북쪽의 샤를로텐룬(Charlottenlund) 지역에 자신의 집을 지었으니. 현재 오르드룹고르 뮤지엄(Ordrupgaard Museum)의 일부로 운영되고 있는 핀율 하우스(Finn Juhl House)다. 그는 1942년에 이 집을 짓고 들어와 1989년 생을 마감하기까지 살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집은 그의 전성기를 함께한 셈이다. 인테리어의 작은 디테일 하나까지도 세심하게 수정해나가며 오랜 시간에 걸쳐 직접 완성한 이곳은 핀 율 최고의 마스터피스라 일컬어지기도 한다. 각 방의 빛과 아트, 컬러 등이 어우러지며 만들어내는 부드럽고 색다른 조화에서 핀 율이 꿈꾸던 이상적인 삶을 확인할 수 있다. 집은 두 개의 건물이 이어진 형태이며, 안뜰을 감싸는 구조를 띠고 있다. 이로 인해 모든 방에서 안뜰을 바라볼 수 있으며 서로 흐르듯 매끄럽게 이어진다. 한편 그가 디자인한 오가닉하고 조각적 형태의 가구들은 연결된 각 공간에 저만의 독특한 캐릭터를 형성해주고 있다. 포엣 소파는 이곳 거실의 벽난로 옆에 두기 위해 디자인한 것이며, 그 외에도 여러 가구가 바로 이 집에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라니 흥미롭다. 현재 핀 율 하우스는 주말에만 방문객을 받는다. 코펜하겐에서 루이지애나 박물관을 방문했다가 들러가는 코스로도 추천할 만하다.

Vilvordevej 110, 2920 Charlottenlund

www.ordrupgaard.dk

핀 율이 그의 나이 30세에 지은 핀 율 하우스. 그의 집은 건축, 디자인, 예술이 조화롭게 하나의 이상을 표현한 종합예술 작품으로서 의미가 있다. 곳곳에 자리 잡은 그의 조각적 가구를 살펴보는 것도 흥미롭다.



Courtesy of House of Finn Juhl, Ordrupgaard

1 건축을 전공한 핀 율이 지은 건축물은 현재 얼마 남아 있지 않다. 샤를로텐룬의 핀 율 하우스는 건물 두 채를 이어 완성했으며, 어느 방에서나 볼 수 있도록 안뜰을 끼고 있는 구조다. **2** 실내의 공간과 공간 사이가 흐르듯이 매끄럽게 이어진다. 핀 율은 이 집의 구석구석을 직접 손보며 오랜 시간에 걸쳐 원하는 모습으로 완성했다. **3** 그는 자연 속에 자리 잡은 이 집에서 빛과 컬러, 아트 등을 통해 원하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그의 포엣 소파, 치프테인 체어, 실버 테이블이 곳곳에 저마다의 쓰임새로 놓였다. **4** 거실에서 그 너머의 응접실을 바라본 모습. 벽에 건 회화는 덴마크 화가 빌헬름 룬스트룀(Vilhelm Lundstrøm)이 그린 핀 율 아내의 초상화다. 이 외에도 핀 율은 화가 아스게르 요른(Asger Jorn), 조각각 에릭 토메센(Erik Thommesen)과 소냐 페르로브 만코바(Sonja Ferlov Mancoba) 등 덴마크 예술가들의 작품을 세심하게 선별해 공간을 장식했다.

1 파라다이스시티의 그랜드 디럭스 풀빌라는 단 두 채만 존재하는 최상급 독채 객실이다. 풀빌라 투숙객 전용 입구와 엘리베이터를 갖춰 완벽한 독립성이 보장된다. 거실과 침실 벽의 아트워크는 모두 데이미언 허스트의 오리지널 작품. **2** 카우스의 대표 캐릭터가 서로 감싸안고 있는 모습의 작품 '투게더(Together)'. 높이가 6m에 달하는 이 거대하고 대담한 작품은 소재가 나무라서 친근하게 느껴지는 반전 매력이 있다. **3** 구사마 야요이의 '그레이트 자이갠틱 펌킨'은 파라다이스시티 단지 내에 있는 세 개의 윙이 만나는 접점에 자리 잡았다.

Courtesy of Paradise City

머무는 기쁨을 극대화한 아트테인먼트

파라다이스 그룹의 '파라다이스시티'

머무르는 것 자체로 예술적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인천 영종도의 아트테인먼트 복합 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Paradise City). 호텔과 컨벤션 공간, 카지노 등이 함께 들어선 이곳의 33만m² 단지 내에는 21세기 앤디 워홀이라고 불리는 미국 팝 아티스트 카우스(KAWS)의 대형 설치 작품에서부터 제프 쿤스, 데이미언 허스트, 박서보, 하우메 플렌사, 로버트 인디애나 등 세계적 거장과 국내외 아티스트의 예술 작품 3000여 점이 전시되어 있다. 특히 로비의 중앙이자 호텔을 구성하는 세 개의 윙이 만나는 교차로에 놓은 구사마 야요이의 '그레이트 자이갠틱 펌킨(Great Gigantic Pumpkin)'은 방문객이 자신만의 취향과 속도에 따라 언제라도 떠나도 좋은 이 무료 아트 투어의 훌륭한 출발점이 되어준다. 그뿐이 아니다. 리조트 내에 마련된 2개 층의 전시 공간 '파라다이스 아트 스페이스'는 제프 쿤스의 작품과 데이미언 허스트의 작품 등 파라다이스시티의 소장품을 전시하는 상설 전시관과 더불어 기획 전시관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한편 파라다이스시티의 그랜드 디럭스 풀빌라에서는 942㎡의 넉넉한 공간에서 로이 리히텐슈타인, 데이미언 허스트 등의 오리지널 아트워크와 함께 철저히 독립적이고 차별화된 휴식이 가능하다.

인천시 중구 영종해안남로321번길 186

www.p-cit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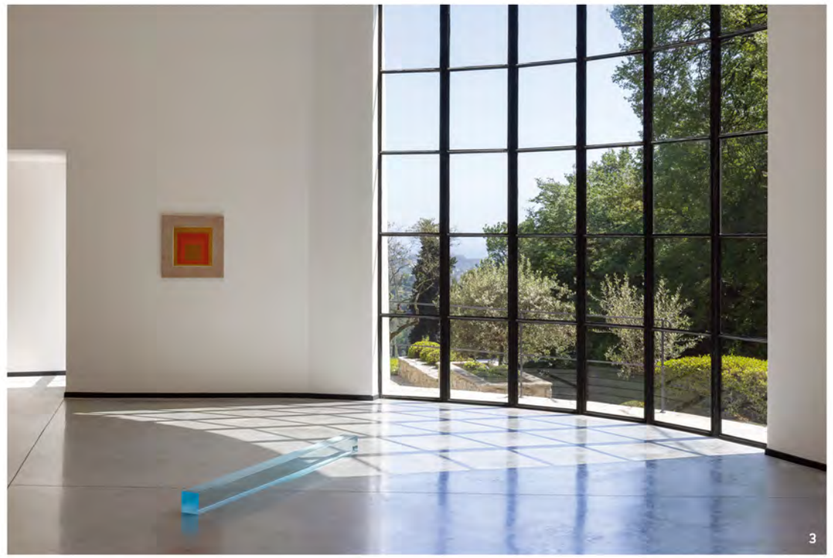
전설적 모더니스트들과의 하룻밤

퐁다시옹 카브 생폴드방스의 '장 프루베 게스트룸'

도널드 저드, 댄 플라빈 등 개념 미술과 미니멀 아티스트의 작품을 풍부하게 소장하기로 알려진 퐁다시옹 카브(Fondation CAB)는 2012년 벨기에의 컬렉터 우베르 보네(Hubert Bonnet)가 설립한 비영리 아트 공간이다. 벨기에 브뤼셀을 위주로 운영되던 이곳은 2021년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Saint-Paul-de-Vence)로 공간을 확장했고, 방문객을 위한 게스트룸과 레스토랑을 통해 전설적 모더니스트의 작품과 함께하는 독특한 경험을 제공한다. 건물은 기존 생폴드방스 미술관을 인수한 것으로 이를 새로운 쓰임에 맞게 개조한 이는 파리의 건축가 샤를 자나(Charles Zana)였다. 평소 유니크한 비스포크 인테리어 데커레이션, 가구 컬렉션으로 알려진 그는 아트와 20세기 빈티지 가구, 주변의 풍부한 자연 풍경을 재료 삼아 각 객실을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감각으로 버무렸다. 르코르뷔지에의 헤드보드, 장 프루베의 데스크와 의자, 알바 알토의 램프, 그 외에도 샤를로트 페리앙과 피에르 잔느레 등의 가구가 놓인 갤러리 건물 내 네 개의 객실 외에도 또 다른 선택지가 있으니. 바로 장 프루베가 1944년에 디자인한 조립식 주택이다. 샤를 자나는 오리지널의 디자인 정수를 유지한 상태로 이곳을 장 프루베가 직접 사인한 가구들을 갖춘 더블 베드룸으로 재구성했다. 이 독채 건물은 그만의 감성적인 연못을 지니고 있으며, 별도의 욕실도 갖췄다. 미드센추리 디자인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일탈을 선사할 게 분명하다.

5766 chemin des Trious, Saint-Paul-de-Vence, France
www.fondationcab.com

1 퐁다시옹 카브 생폴드방스 아트센터의 건물은 1950년대에 지어진 것이다. 예전에도 모더니스트 스타일의 아트 갤러리였던 덕분에 퐁다시옹 카브의 미니멀 아티스트 위주 컬렉션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다. **2** 20세기 빈티지 가구와 아트워크로 구성한 게스트룸. 장 프루베의 의자가 놓인 방은 건물 내에 있는 세 번째 게스트룸이다. 창밖으로 앙티브만의 풍경이 보인다.



1 미술관의 정원에 자리한 장 프루베의 조립식 하우스. 6m²의 아담한 공간에는 작은 연못도 있다. 이곳을 객실로 꾸미는 과정에서 건축가 샤를 자나는 장 프루베의 사인이 적힌 가구들을 들였고, 욕실도 새롭게 설치해 연결했다. **2** 장 프루베의 데스크와 의자를 놓은 세 번째 게스트룸. 건축가 샤를 자나가 디자인을 맡은 이곳은 그 외에도 세르지우 오드리기스, 프리츠 한센, 알바 알토의 디자인과 피터 다운스브로(Peter Downsbrough)의 아트워크로 정교하게 꾸몄다. **3** 퐁다시옹 카브는 개념미술과 미니멀 아트를 위주로 선보인다. 생폴드방스는 매그 파운데이션, 모던 아티스트의 조각이 어우러진 샤토 라 코스트 등이 가까이 있는 프랑스 남부 현대미술의 중심지다.

Courtesy of Fondation CAB